

부활의 주를 보았노라

3월 30~31일 '부활주일', 칸타타 및 부활절 행사
지난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십자가의 증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3월 30일(토)과 31일(일)은 죽음을 이기
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부활주
일이다.

부활주일 예배에서 칸타타를 선보인다. 서빙고온누리교회 토
요주일 1~2부 예배에서는 버금미선과이어&양상블이 '예수 부
활하셨다'를, 일요일 1~4부 예배에서는 주향한찬양사역팀이
'구속의 사랑'을 주제로 칸타타를 한다.

양재온누리교회 토요일예배에서는 김영미 권사와 연합찬
버팀(양재 토요일&일요일)이 '김영미 권사와 찬배의 부활
찬양 메들리'를 주제로 찬양한다. 양재 일요일 1~4부 예배에
서는 도곡 주임재찬양사역팀이 '증인들의 고백'을, 도곡교육관
일요일 1~2부 예배에서는 양재 주의빛찬양사역팀이 '주 사
셨네, 할렐루야'를 주제로 칸타타를 한다.

지난 3월 25일(월)부터 29일(금)에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십자가의 증인들'이 이어졌다.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고난

주간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 것을 결단했다.
요일별로 다섯 가지 죄를 회개하고, 예배 전후로 침묵기도 했
다. 교회 로비에 설치된 회개의 십자가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제
목을 못 박는 의식도 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생명의 삶> 본문으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를 증언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면서 "우리의 자
랑이자 삶의 원리, 그리고 능력인 십자가를 사랑하고 전하는 성
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예은 자매(서빙고온누리교회)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다"면서 "부활하신 예
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소
망했다<관련 기사 5면>.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바이 바이 플라스틱!

4월 7일까지 참가 소감문 이메일 제출

2024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이 3월 31일 그 막을 내린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개인과 가정, 일터에서 발생시킨 플라스틱 사용량
을 확인하고,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했다. 텀블러, 장바구니, 대화용기 사용하기 등을 실천
하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현저히 줄였다.

서나영 자매(여호수아공동체)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텀블러, 종
이백, 재활용 박스 포장, 대나무 칫솔 사용 등 생활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면서 "하나님
이 창조하신 환경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습관을 더 키워
야겠다"고 다짐했다.

2024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참가 소감문을 받는다. 4월 7일(일)까지 캠페인 기간에
찍은 사진과 간단한 소감문(A4 한 장 이내)을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보내면 온
누리교회 SNS와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차세대 그림 대회 및 전시회도 한다.
4월 14일까지 창조질서 회복 관련 A4용지 한 장 크기의 그림을 그려서 이메일(onnuri.lent
@gmail.com)로 보내면 5월 5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전시한다. / 홍하영 기자

THE 행복한 3040 맞춤형도 세미나

4월 15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THE 행복한
3040 맞춤형도
세미나'가 4월
15일(월) 오후 6
시 서빙고온누
리교회에서 열
린다. 이번 세미
나에서는 '소그
룹 모임별 3040
세대 초청 맞춤
전도 기획'과 '
3040 맞춤형 생활 속 전도콘텐츠 활용법' 등
을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4인 1조 전도 전략(기획 진행, 데



코, 안내 봉사, 식사), 온라인전도플랫폼 '들어
볼까'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전도 전략 등을
배운다.

3040세대를 전도하고 싶은 목회자, 전도팀,
구역 소그룹이 대상이다. 강의는 여성민 목사
(전도사역본부장), 고정민 장로(복음의 전함
이사장)가 하고, CCM 가수 지미선이 특순한
다. 회비는 4만 원이다. 4월 8일까지 등록하면
3만 원, 4인 이상 등록하면 1인
당 2만 5천 원이다. 참가신청
은 QR코드로 하면 된다.

문의: 02-2078-3437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4월 21일과 28일 기증품 모집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을 4월 21일과 28
일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인천, 강동온누리
교회에서 한다. 서빙고와 양재, 부천은 교회에
설치되는 굿월스토어 기증함에, 수원과 인천,
강동은 교회 내 지정 장소로 기증품을 가져오

면 된다(나머지 캠퍼스는 추후 공지). 기증품
은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도
서, 음반,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이다.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은 성도들이 모아준
기증품을 굿월스토어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

문의: 1533-0091

/ 김다애 기자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시 30분 서빙고 비전홀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
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5분 찬양, 15분 공동
체 성경읽기, 5분 메시지, 5분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새벽기도회가 이어진다. <우리말성경>
으로 신구약을 함께 듣고 읽는다.

공동체 성경읽기는 말씀을 들으면서 읽고,
나누면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
도회,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모임, 순 공동체 성
경읽기도 이어지고 있다.

문의: 02-3215-3239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예수님의 공생애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갔던 장면 외에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사시지 않고, 갈릴리 주변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최후의 일주일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삼 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예루살렘 입성 이후 최후의 일주일의 삶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고, 공생애 모든 표적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서가 예루살렘 입성 이후 일어나는 사건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3년과 일주일을 비교해 보면 그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생긴 마을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교회력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최후의 일주일 이전의 주일을 ‘종려주일’, ‘승리의 입성 주일’이라고 부르며 교회력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공생애를 사시며 보여주셨던 것과 사뭇 다릅니다.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늘 “다른 이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7장을 보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시고, 대중에게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 산으로 숨으시거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등 줄곧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도망가실 정도로 관심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도리어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경고하시고 막으셨던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스스로 행하셨을까요?

겸손한 왕, 언약을 이루시다

마가복음 11:1~11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

〈마태복음〉에서는 온 성이 떠들썩할 정도로 군중의 환호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스스로 기획하시고 연출하셨습니다. 본문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에게 나귀를 가져오도록 심부름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나귀를 끌고 오는 일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강력한 조연은 나귀입니다. 나귀를 선택하신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두 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1~3절).

두 명의 제자들에게 누군가의 소유인 나귀를 가져오되 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빌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상세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귀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가 필요하시니 쓰시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신 말씀이 눈에 띄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나귀를 빌리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빌려서 사셨습니다. 빌린 집에서 사셨고, 빌린 배를 타셨고, 빌린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빌린 무덤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빌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린 것을 돌려놓으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빌린 것을 확실하게 갚아야겠다는 적용도 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갖고 오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때문입니다. 〈스가랴〉9장 9절을 보면, 구원의 왕이 겸손하시기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의 생애 모든 사역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예언만 200구절이 넘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부터 부자의 묘에 안치되는 것까지 직접적인 예언만 200개, 간접적인 것까지 하면 700~800개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서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대개 왕은 무엇을 탑니까? 말을 탑니다. 달릴 수 있는 튼튼한 말을 탑니다. 그래서 왕이 출정을 하거나 전쟁에서 돌아올 때는 웅장한 말소리와 함께 행진을 합니다. 새끼 나귀는 걷는 속도나 모양을 볼 때 왕의 품위나 권위를 상징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절 자체를 왕정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라고 하면 왕을 무시하는 것 같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나귀는 전쟁의 동물이 아니라 평화의 동물입니다. 나귀는 싸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평화로울 때 터벅터벅 천천히 걸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는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라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높은 깃발도 없고, 큰 나팔도 없고, 군사들의 호위도 없이 나귀를 홀로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구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귀의 구유입니다. 서민들의 집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말은 매우 비싼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우신 곳도 나귀의 구유입니다. 태어나실 때도 나귀의 구유였고, 마지막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군중의 의도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데 나귀를 타신 모습은 군중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 특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기적은 군중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줄 메시아라는 기대를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관을 가지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겂옷을 깔아 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 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



“예수님은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겸손한 왕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8~10절).

흔히 종려주일에 이 고백과 외침으로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찬양은 찬양인데 오해가 포함된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환영하는 외침이지만, 군중의 의도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가 다릅니다. 그들은 길 위에 겉옷을 갈아드리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 와 길에 깔고, “호산나” 주님을 환영하며 외쳤지만, 그들이 지금 외치는 구원해 달라는 노래는 영적인 구원, 죄로부터, 사탄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구원, 즉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단어입니다. ‘호산나’라는 단어가 정치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시 118:25).

유대인들은 <시편>을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겉옷을 갈았습니다. 세속적인 왕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민족주의적인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종려나무를 지도자를 환영하거나 축복할 때 사용했을까요? 주전 175년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때 유대에서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를 이기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회복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마카비우스로부터 시작된 왕조가 약 10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마카비우스가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영하는 도구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에서 유래해서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그 행위를 똑같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이 로마 제국을 향해 이루어진다면 전쟁도 이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독립, 해방, 자유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마카비우스를 환영하듯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한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유대 민족이 복음화 되었을 때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에서 독립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와 학교들이 없었다면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앞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장 적은 인원이었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민족대표 33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크리스천들이 민족주의와 복음적인 신앙이 하나 되어서 민족주의에 흡수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앙과 민족주의가 흡수되어서 민족주의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의 신앙을 민족주의에 넘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항일운동, 반공운동 등 민족의 저항에 크게 기여했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기독교사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올바르게 저항할 수 있었다는 것, 신앙을 이념화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넘긴 것입니다. <시편>의 어느 구절을 읽어도 <시편> 기자가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인용했습니다. 그 모습이 표출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니 환영하자고 연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연출하신 것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군중은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환호하는 군중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대중들의 환호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철저하게 구약에 나타난 예언을 이루시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창과 칼, 무력, 때로는 기적으로 일으키는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평화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행위가 나귀를 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겸손한 왕’

“내가 예브라임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다”(슥 9:10).

세상의 통치자들은 전차와 말, 활이 있어야 합니다. 무력이 통치의 기본이 됩니다. 세속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다스려지는 왕이 있습니다. 무력이 아닌, 힘이 아닌, 권력이 아닌 것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온유와 겸손, 섬김과 사랑, 희생과 나눔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평화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대적들이 음모를 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면서 예수님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대적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몰랐습니다. 가롯 유다가 필요한 것도 누가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잡아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제자가 밀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준비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

고 입성하시고, 게다가 수많은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으니 확실한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다섯 전입니다. 유월절은 그달 14일입니다. 이날은 10일입니다. 율법에 유월절 양을 취하는 날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전에 어느 양을 죽일 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대적에게는 표적이 정해졌고, 그때부터 명확한 움직임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군중이 외쳤던 호산나를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미했던 호산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외쳤지만,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을 버리는 변덕스러운 믿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탐욕에서 구원해 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군중은 옷과 가지를 갈아 예수님을 세속적인 통치자로 대접했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갈아드리야 할 것은 우리의 염려, 근심, 죄와 허물입니다. 그것들을 예수님 발 앞에 내어드려 모든 죄를 짓밟아 승리하신 승리자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겸손한 왕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이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그분이 가장 겸손한 나라요, 왕이신 분이 가장 섬기는 나라요, 왕이신 분이 가장 희생하는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과 가까이 있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과 섬김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닮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종려주일을 보내며 언약을 이루시는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교육

동행하는 교육

“선생님, 식사 한번 해요!”
1987년 교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자의 전화였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언제 호주에서 귀국한 거야?”
간간이 소식을 들어왔기에 근황을 물었다.
“네,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호주에서 한인 교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다가 귀국했다는 소식이였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중에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얘기를 했다고 한다. 설교를 들었던 대학생 딸이 “아빠는 그 선생님을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그 질문에 머뭇거리자 딸에게 “나쁜 제자네!”라며 핀잔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 제자는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여주로 내려와서 다니던 중에 초임 교사인 나를 만났다. 그 제자의 아버지는 한국은행에서 근무하셨다. 그분은 월급을 집에 가져오지 않고 농촌에 도서를 보급하는 일을 하시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 서울역 노숙자의 대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였다. 그 제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가정은

돌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반감으로 본드를 흡입하고, 음주와 흡연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어느 날 방과 후에 있었던 일이다. 술에 취한 듯한 얼굴로 학교 야외 수영장에서 옷을 입은 채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단을 치려고 다가갔다. 그는 오히려 내게 “선생님은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고 사셨어요?”라며 대들었다. 돌발적인 상황이 당혹스러웠다. 물론 나쁜 짓을 전혀 안 하고 살지는 않았지만, 너무 당황해서 내일 아침에 조용히 만나자고 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그 제자는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학교에서는 퇴학이나 권고 전학 등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나는 상담을 통해 그 학생의 상처에 공감해 주었다. 그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기에 교감선생님에게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맡겨달라고 했다. 퇴학당하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 네 번을 함께 참석하자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은 무모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그 뜻을 잘 아는 한 교사의 순수한 동기를 외면하

지 않으셨다.
윌머 R.위트는 “제자는 스승을 모방한다”고 말했다. 교사로써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과 삶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신 것처럼 말이다. 바울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이 가독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롬 15:14)라고 권면했다. 그 학생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세 번째 예배에 참석할 때까지는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선생님과의 약속한 네 번째 주일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령님이 강하게 마음을 터치해 주셨다고 했다. 그 제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 KO STA 강사도 했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회절한 무덤처럼 왜곡되고 뒤틀린 가식이 진실을 덮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섬김이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신 선친의 뒤를 이어 교사를 거쳐 교장으로 정년퇴직하고, 이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설립된 미션스쿨로 왕따 없는 학교, 다니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며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나는 교육 현장에서 말로 가르치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체휼해 왔다. 우리 옆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청소년들의 파도치는 삶에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동반자의 조건은 동경이나 동정이 아니라 동행이다. 제자들과 동행하며 삶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해본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사 42:3).



임희창 장로
(동대문중앙공동체)

기독교 세계관, 그 지경을 넓혀주는 책

아이들을 거룩하게 기르는 부모!

현명한 문화 활용 가이드

문화를 서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안내서



〈현명한 문화 활용 가이드: 문화를 서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안내서〉
존 스톤스트리트, 브렛 칸클 저
| 도서출판 콜슨 | 18,000원

다음 세대가 문화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안내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실제로 존재한다. 존 스톤스트리트와 나는 브레이크포인트 논평에서 항상 문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문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화적 격변의 시대에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책 콜슨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명확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 점이 바로 내가 그와 함께 브레이크포인트에서 매일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다. 존 스톤스트리트는 저서 〈현명한 문화 활용 가이드: 문화를 서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안내서〉에서 이러한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존 스톤스트리트와 공저자인 브렛 칸클은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사역해 왔다. 부모의 동의도 없이 아이들에게 몰래 반대 성별의 호르몬을 투여해 성별을 바꾸려는 학교, 동성 결혼, 만연한 음란물, 약물 중독, 소셜 미디어 등에 관한 헤드라인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학부모들이 문화가 얼마나 빨리 변했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존 스톤스트리트와 브렛 칸클은 부모는 물론이고, 조부모와 교사, 멘토들이 이 문화 속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뿐 아니라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명한 문화 활용 가이드〉를 집필했다.
〈현명한 문화 활용 가이드〉가 가치 있는 이유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명백한 도전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종종 놓치고 있는 문화의 보이지 않는 저류, 즉 지혜와 미덕, 늘어진 청소년기, 소비주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성 혁명의 여파 속에서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까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교사, 청소년 목회자, 멘토, 아이들이 직면하게 될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안내해 주는 핸드북이 필요한 사람 등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상적이다. 또한 〈현명한 문화 활용 가이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실용적이다. 아이들에게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약물 남용이나 기타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이야기,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뜬구름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고 존 스톤스트리트가 브레이크포인트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다. 이 책은 세계관과 이론이 실생활에 적용된 책으로 바로 집어 들고 읽으면서 자녀를 도울 수 있다. 때문에 각 장에는 구체적인 전략과 토론 거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술, 음란물, 소비주의 등 젊은이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3부에서는 문화적 거짓말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며,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단계’가 있다. 마지막 ‘소망 품기’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실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물론 ‘당신은 브레이크포인트를 진행하는 친구 존 스톤스트리트가 쓴 책이니 이 책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말을 꼭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이자 블로거인 알리사 칠더스가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가끔씩 수십 권을 통째로 사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한 권씩 선물하고 싶게 만드는 책이 나온다. 〈현명한 문화 활용 가이드〉가 바로 그런 책이다. 존 스톤스트리트와 브렛 칸클은 자녀들이 의미를 상실한 세속 문화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부모를 돕기 위해 어떤 주제도 피하지 않고 철저하게 다룬다.”
이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이 책은 청소년, 청년들과도 함께 읽고 토론하기에 완벽한 책이다. 사실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라고 말하고 싶다.”
이 거친 문화의 파도 속에서 기독교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나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스톤스트리트와 브렛 칸클이 우리를 돕기 위해 이 훌륭한 안내서를 출간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문화의 거대한 조류를 헤쳐 나갈 준비가 필요한 여러분과 자녀 모두를 위해!
*원문: breakpoint 논평(20170628)



에릭 메탁사스
(작가, 언론인)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들!”

2024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성도들

2024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십자가의 증인들’이 지난 3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이어졌다. 성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다. 회개의 십자가에 기도제목을 적어 못 박고, 미디어 금식과 하루 한 끼 금식기도를 하고 헌금을 봉헌했다. 2024 온누리교회 고난주간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성도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다. 부활절 하루 전 일주일을 경건하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기독교의 핵심 절기 중 하나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2024년 고난주간을 아주 뜻깊게 보냈다.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새벽기도회에 나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미디어 금식과 하루 한 끼 금식기도를 하고, 그 금액만큼 헌금했다. 이 헌금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예정이다.

뜻깊은 고난주간을 보낸 성도들의 아주 특별한 고백이 이어졌다.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겠다는 성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겠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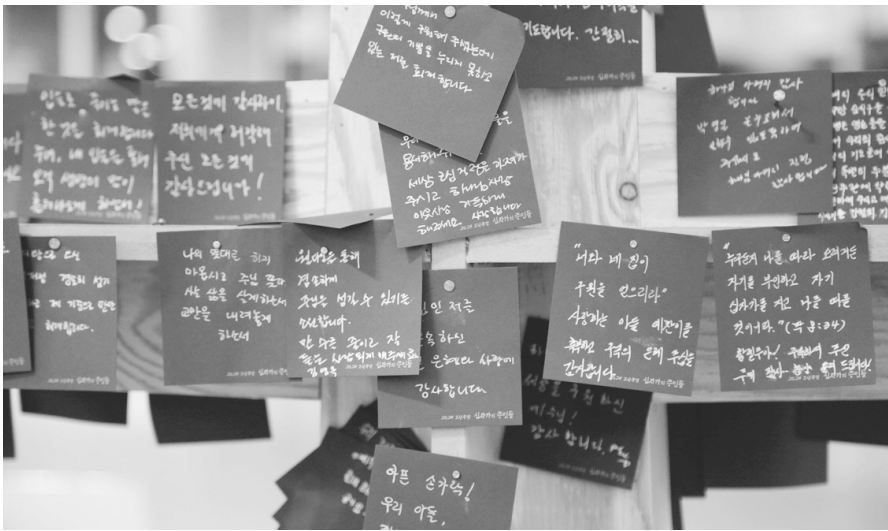
김명란 성도(이수공동체)는 꺾끗 눌러 담은 기도제목을 회개의 십자가에 못박았다. 기도제목이 박힌 회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달았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기도제목을 적어 회개의 십자가에 못박으면서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감격을 가족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서 예수님이 제게 특별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저와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마음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것입니다.”

권기윤 성도(관악금천공동체)는 순원들과 함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 고난주간 묵상한 말씀을 순원들과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섬김을 통해 나타내기로 결정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순원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나오기로 결단했다는 말을 듣고, 그 순원을 섬기려고 함께 참석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정성껏 기록해서 순 단체채팅방에 나눴습니다. 순원들과 은혜를 나눌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가정과 이웃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풍성하게 받은 은혜



사진은 2024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십자가의 증인들’.

를 섬김을 통해 나타낼 것입니다.”

윤정희 성도(찬양공동체)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섬겼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르간을 연주했다. 그녀의 오르간 연주가 그토록 아름다웠던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겠다고 결단하고 섬겼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섬겼더니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오르간 선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기를 소망하며 연주했습니다.”

김성엽, 이예은 부부(서빙고온누리교회)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세상에서

는 맛볼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그 덕분에 그들 부부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다. 지친 삶에서 비로소 벗어나 따뜻한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고 간증했다.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있다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삶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밤새워 일하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고난주간인 줄도 모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부부를 불러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누릴 것입니다.”

최성연 성도(찬양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하다. 그 행복을 이



웃들과 나누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십자가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끝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온 세상에 전하고 말 것입니다.”

/ 김다에 기자 daa2@onnuri.org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찾아라!

‘선교지로 떠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김숙경 권사의 ‘아프리카 우간다 한 달 살이’

〈온누리신문〉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찾고 있다.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이주민을 보살피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오지에 가는 일도 서슴지 않는 주인공도 만난다. 그 다섯 번째 주인공은 김숙경 권사(서빙고공동체, NGO 더멋진세상 실행위원)다. 김숙경 권사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의료사역과 더불어 현지 교회 청년들 신앙 교육에 힘을 쏟았다. 김숙경 권사의 가슴 뜨거운 ‘아프리카 우간다 한 달 살이’ 이야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아프리카 우간다 베드로교회 리더십들과 차세대, 그리고 김숙경 권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권사님, 우간다 함께 가실래요?”

2024년 새해가 시작되기 며칠 전, 김숙경 권사에게 메시지가 왔다. 매년 명절에 선교지로 의료사역을 가는 어느 병원 원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올해 설에는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지인 아프리카 우간다 남수단 난민촌에 간다고 했다. 김숙경 권사가 NGO 더멋진세상 실행위원이기도 하고, 선교에 관한 일이라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기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Yes!”를 외쳤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숙경 권사의 우간다 의료사역 일정은 일주일 남짓한 시간이었다. 그녀의 의료사역 일정이 한 달로 늘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간다 산골에 있는 구피마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베드로교회로!

NGO 더멋진세상이 의료사역을 하는 남수단 난민촌은 아프리카 우간다 북쪽 남수단 국경 지역과 가까이 있다. 김숙경 권사와 NGO 더멋진세상 의료선교팀은 남수단 근처 ‘모요’에 숙소를 잡았다. ‘모요’는 아프리카에서도 이동이 가장 힘든 지역 중 하나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열 시간 달리고, 중간에서 숙박한 다음, 다시 페리(ferry)를 타고 나일강을 건너야 갈 수 있는 곳이다.

김숙경 권사는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의료사역만 하고 돌아가기에는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때 하나님이 어느 마을을 떠올리게 하셨다. 모요에서 차를 타고 30분을 더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산골짜기 ‘구피마을’이었다. 마침 그곳에 NGO 더멋진세상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헌당된 ‘베드로교회’가 있었다.

“사역 일정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NGO 더멋진세상 사역 보고에서 들었던 ‘구피마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구피마을과 베드로교회가 떠오르게 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에 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제가 갈게요 아버지!’ 라고 말씀드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우간다 산골에 있는 구피마을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현재 베드로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이다. 베드로교회를 섬기던 선교사 부부는 사역 기간이 끝나서 떠났고, 베드로교회를 관리하던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 지부장도 사무실을 이전해서 매주 방문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김숙경 권사가 베드로교회에서 사역하려면 숙식과 교통편을 포함한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70세를 코앞에 둔 여성 혼자 감당해내기에는 버거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결단했다.

기겁하며 도망쳐 나올 법한 그곳에서 사랑에 빠지다

김숙경 권사는 이왕 들어간 그곳에서 제대로 사역하고 싶었다. 곧장 항공편을 3주 연장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사역계획표를 만들었다. 사역의 목적과 방식,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 방법 등을 빠곡하게 적었다. 사역에 필요한 물품도 샀다. 예배를 위한 키보드, 영어판 일대일제 자양육 교재, 전도용 영어 팝업책, 영어 찬송가, 영어 성경, 창조과학 교육을 위한 창조모빌, 전도를 위한 복음 팔찌와 전도지 등 현지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준비했다. 자비량으로 준비하는 중에 아프리카 한 달 선교를 혼자 간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의 후원금도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우간다로 떠나는 날, 식사하다가 오래전 치료한 앞니 세 개가 부러

졌다. 순간 당황했지만, 치아가 부러졌다고 일정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피마을에 꼭 가야 했기 때문이다. 김숙경 권사는 부러진 치아 세 개를 작은 통에 넣고 우간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그녀의 아프리카 우간다 한 달 살이가 시작됐다.

남수단 난민촌 의료사역을 마치고 들어간 구피마을은 생각보다 환경이 훨씬 열악했다.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밤만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을 뒤덮었다. 문명의 흔적조차 드문 오지 중 오지였다. 어지간한 사람은 기겁하며 도망쳐 나올 법한 곳에서 김숙경 권사는 행복을 찾았다. 구피마을과 사랑에 빠졌다.

“흙벽돌과 흙바닥 위에 잔 나뭇가지로 지붕을 올린 우간다의 전통 가옥이 참 정겨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가끔 내리는 소나기를 맞으며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들판에 자라는 푸른 나무와 풀들, 그리고 그들의 주식이 되는 까사바 열매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은 마음에 큰 평안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커다란 눈동자가 보석처럼 빛나는 해맑은 얼굴의 어린아이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구피마을은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자연과 그 자연에 순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작은 호의에도 큰 미소로 감사하는 멋진 사람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순종뿐입니다”

김숙경 권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피마을을 찾았다. 우간다에서 김숙경 권사가 보낸 하

루는 이렇다. 아침 일찍 일어나 QT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부러진 치아 세 개를 순간 접착제로 조심히 붙인다. 그 다음 그날 사용할 교재들과 전날 모요시장에서 장을 본 음식과 간식을 챙겨서 썬데이 형제의 차를 타고 모요에서 구피마을 베드로교회로 출근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베드로교회 청년 리더들과 훈련한다. 제일 먼저 온누리교회 양육의 뿌리인 QT 훈련, 그리고 일대일 제자 훈련, 점심 식사 후에는 예배를 위한 음악 교육을 한다. 악보 보는 법과 키보드 연주법을 가르쳐 준다. 잠깐 휴식 후에는 전도 훈련을 한다. 창조신앙 회복을 위한 창조과학 교육도 했다. 중고등학생들이 하교한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찬양단을 위한 발성 훈련을 한다. 이후 시간은 청년 리더십들이 맡아서 한다. 집중력도 좋고 성실해서 훈련이 잘 진행되었다.

“베드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이 교회에 훈련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베드로교회 청년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돌보고, 다음세대를 훈련 시킬 수 있도록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전수했습니다. 모든 훈련을 기쁨으로 참여한 마넛세, 패트리샤, 임마누엘의 열심에 정말 크게 감동했습니다.”

김숙경 권사는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베드로교회를 찾아가 청년들을 교육하고, 성도들과 어울렸다. 훈련팀과 함께 구피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복음도 전했다. 복음이 온 마을에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전도하는 날도 만 들고 전도용품도 마련해 주었다. 복음을 전하는 이나 전도 받는 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김숙경 권사의 열정이 구피마을과 베드로교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교회 앞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창조과학 강의를 했다. 아이들은 동양에서 온 아줌마를 신기해하며 매일 교회를 찾아와 함께 찬양을 했다. 이웃 전도를 하면서 만난 마이클 할아버지 가족들은 베드로교회 일원이 됐다. 베드로교회의 리더십들은 김숙경 권사와 함께 예배 순서와 진행 등 예배 과정을 재구성했다. 찬양팀을 신설하고, 어린이 주일학교 분반 담임제도를 만들었다. 모든 성도가 성경통독도 시작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도 김숙경 권사는 끝까지 겸손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순종뿐입니다. 제 삶의 모든 것, 구피마을에서의 일들은 은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피마을과 베드로교회에 제가 잠시 머물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선교지에서의 한 달 살이를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하나님 나라,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라!”

사회선교의 의미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유진아 목사
(S브릿지공동체,
사회선교본부)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눅 4:18-19).

우리가 절대 진리이자 보편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은 과연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과제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가? 온누리교회는 이러한 고민을 안고, 교회 초기부터 감당해 왔던 다양한 구제·금휼 사역을 돌아보며 재정비하는 작업을 했다. 2014년 초에는 사회선교부를 새롭게 출범시켜 교회의 사회책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사회선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는 <미가> 6장 8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성서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선교사역이다. 이전의 선교 패러다임이 특정 지역, 특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보았다면, 사회선교는 사회 전체, 즉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을 선교지로 보고, 복음화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는 바로 사회선교가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물음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개인의 영혼 구원에 관한 것으로만 이해해 온 교회에서는 사회선교가 어떻게 복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Acts29’라는 사도행전적 그 교회의 비전을 품고 달려온 온누리교회는, 즉 예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온누리교회는 사회선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사회선교라는 개념에 대한 무수한 신학적 설명과 성서적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라는 핵심 개념이 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이자 삶의 원동력인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 목적이며, 궁극적으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뜻한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매우 아름답고 풍성하다. 온전한 복음 전파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눅 4:43).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씀(마 4:17, 막 1:15)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셨다(마 13).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다(마 6:10, 눅 11: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지시하셨고(마 9:35, 10:5-7), 늘 이와 함께 치유사역과 축사를 병행하셨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지상에서 마지막 40일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다(행 1:1-3).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비전이자 소명, 사명이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세 가지 특징

그렇다면 오늘날 온누리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전파해야 할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더 나아가 이 복음은 우리가 논하고 있는 교회의 사회선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개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한 인격, 더 나아가 온 세상의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성경에 그려진 예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누가복음> 4장만 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하셨고(눅 4:35), 열병을 쫓아내 병이 떠나게 하셨고(눅 4:39), 여러 아픈 사람에게 일일이 안수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눅 4:40).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권위 있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포함했다. 예수님은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모두 인지하시고, 그 가운데서 한 개인의 삶 전체를 바라보시며,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 예수님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며 사람들의 실질적인 육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믿음과 행위 사이에 긴장이 없다. 예수님은 믿음이 곧 행위이자 실천이었기에 믿음과 행위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인간의 온전한 구원과 회복,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온 창조세계의 회복,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계셨다.

둘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는데, 먼 훗날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는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

심을 받았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셨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해 주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싶으셨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단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길, 온전한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세만을 지향하는 지구 탈출 기적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셨고, 그 일을 구원하시며, 당신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리기에 바쁘셨다.

셋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져야 한다. 예수님은 머무셨던 곳에서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치료해 주셨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더 많은 병든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셨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하시며, 가장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신다.

하나님의 뜻, 온전한 복음 전파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들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개인 영혼의 구원에만 치우쳐 있지 않다. 인간의 온전한 구원과 회복, 더불어 온 창조세계의 회복까지 염두에 뒀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먼 훗날 완성될 비전이자 동시에 오늘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다가가는 사랑과 섬김이어야 한다.

요즘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선포해야 할 마땅한 절대 진리인데, 모두를 위한 가장 고귀한 공적 진리인데, 그동안 우리가 복음의 한 측면만 강조해 온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야 한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매우 아름답고 풍성하다. 온전한 복음 전파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일이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금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미 6:8).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다’는 바람과 열정을 지닌 질문자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갈망과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렇기에 이 질문으로 고민하는 질문자는 삶의 방향이 긍정적이다. 계속 이 열정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이 나의 선택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믿음은 은혜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엢 2:8),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롬 10:17).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나의 믿음이 어떻

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믿음은 나의 선택이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보며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이지만 거기에 그치지 말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다시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답변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신뢰를 회복하라.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중요한 방법

이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다”(요 13:1)고 말씀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고자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서 사랑의 대화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자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신다(사 43:21).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확고할 때 회복될 수 있다.

셋째,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라. 그리스도인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교회와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뜻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경험한다(엢 2:22). 그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자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고후 9:8), 때를 따라 돕는 은혜(히 4:16)를 주실 것이다.



신경훈 목사
(갈렙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부부

부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해야 한다. 비판 없이 배우자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 남편을 예로 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족, 특히 아내의 따뜻한 인정이 필요하다. 인정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칭찬이나 감사로 표현될 때도 있다. 남편이 했던 행동이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칭찬해줬을 때 남편의 마음에 만족감이 생긴다. 그런데 칭찬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 때가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너무 익숙해지고, 결혼 연륜이 많아지면 칭찬보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의식의 흐름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번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애썼던 일상적인 일이라도 누군가는 칭찬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 칭찬이 선순환되고, 상호작용을 갖기 때문에 고스란히 아내와 가족들에게 다시 흘러가게 된다. 칭찬이 가장 안에 흘러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인정은 서로에 대한 칭찬 또는 감사의 뜻을 입고 표현돼야 한다. 서로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온다. 특히 감사는 그 사람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표현이다.

감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기만 하면 몸 둘 바를 모르고 경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감사하다”고 말하지 말라고까지 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까운 사이에 감사를 표현

하는 게 너무 어색하다는 것이었다. 가까운 사이라면 당연히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데 왜 낮간지럽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요즘 가족 분위기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섬김을 받고, 봉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무뎠지는 때가 있다.

감사가 무뎠지는 것은 부부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게 부부와 가족 사이에 필요하다.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특히 애쓰고 수고한 일과 헌신에 대해서 자주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 감사를 자주 표현할수록 늘 필요했던 ‘인정’이라는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서로를 자주 인정하는 작업에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 주고, 높여줘야 한다. 당연하지만 이 작업이 그리 쉽지 않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자신의 눈높이를 극단적으로 낮춰야 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 때도 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칭찬과 감사로 상대를 인정해 줬을 때 얻는 귀한 것들이 있다. 서로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고, 자신도 존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는 서로를 치유하는 관계이고, 서로의 약점을 감싸안으며 다독이는 관계다. 더 나아가 낮아져

있던 자존감을 세워주는 관계도 된다.

인정에 목말랐던 남편이 있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학업 등에서 능력이 떨어졌던 것도 아니다. 다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늘 비교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당한다고 느끼면서 서운하고, 화가 나는 경험을 많이 했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지만, 자신이 누군가와 비교당하거나 열등감을 자극하는 말을 듣는 날이면 ‘날 무시하냐?’라는 생각에 마음이 위축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

그 남편은 사회생활을 위한 가면으로 자신을 철저히 가리면서 살고 있었다. 비교당하거나 편견을 듣는 상황에서도 분노를 미소로 가릴 수 있는 삶의 기술을 익혔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관계에서 드러났다. 부부는 가면으로 가린 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물론 때로는 좋은 척, 관찮은 척 가면을 쓸 수 있지만, 늘 자신을 가린 채 살아갈 수는 없다. 숨든 좋은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관계가 부부다. 다행인 것은 자신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민망한 것도, 창피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내면을 보임으로 자신의 깊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상처도 조금씩 아무는 계기가 된다. 인정에 목말랐던 남편이 아내에게 한두 마디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 상처가 건드려지는 것을 느끼곤 했다. 아내가 아무 의미를 담지 않고, 다른 남편에 대해 말했을 때 자신을 남과 비교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몹시 화가 났

다. 때로는 아내가 한두 마디 서운한 말을 하면 자신을 비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몹시 불쾌하고 서운했던 적도 있었다.

그 남편은 서운하고 화가 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인정에 대한 갈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인정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내면의 갈증이 있다는 것은 그 영역에 면역력이 몹시 약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남편에게는 인정이라는 내면의 심한 갈증이 있었다. 내면의 인정 갈망은 마음의 면역력을 심히 약하게 만들어 쉽게 상처받고 병들게 했다. 단순 감기 정도 수준을 몸져누울 정도의 심각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기도 했다. 인정은 배우자의 배려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칭찬과 감사, 상대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언어와 따뜻한 행동 등으로 전달된다. 인정이 필요한 배우자에게는 더욱 신경써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서로를 더욱 인정하고, 수용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맛있는 말씀 해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눅 1:1)

〈우리말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장 1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저자 누가의 집필 이유와 목적, 방법과 내용이 나온다.

〈누가복음〉 집필 이유는 많은 사람이 붓을 들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복음에 관해서 저술하려고 하였기에 누가가 쓴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먼저 복음 저술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다. 신앙을 기록하려는 분위기에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 다음으로 누가만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차별성을 지닌 복음을 기록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 달리 〈사도행전〉을 집필한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복음을 기록해 보겠다는 누가의 뜻이 해당 서술에 담겨있다. 의사로서의 치밀한 관찰력과 기도의 영성(〈누가복음〉의 특성 중 하나는 기도를 강조)을 겸비한 누가가 서술한 〈누가복음〉은 균형 있게 복음을 전달하므로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도마복음〉

과 다르게 정경으로 채택되었다.

집필 목적은 기억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다. 인간은 망각과 교만의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명백한데도 하나님을 거부한다. 연약한 존재인 사람들에게 누가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일깨우고자 했다.

기록은 누가에게도 도움이 된다. 기록이 신앙의 기억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기록하면서 신앙이 내재화된다. 내 안에서 새롭게 상기된 은혜의 기억은 남들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도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지닌 누가의 복음서 기록은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기억의 재생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준다. 누가의 복음서 기록 목적은 분명하다.

집필 방법은 이야기의 재배열이다. 같은 이야기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다가온다. 절묘한 배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순서 없이 그냥 묶여넣어도 알아서 그 안에서 잘 작용해서 소화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사

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복음을 흡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재배치했다. 누가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는 동시에 자신이 배운 수사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아울러 말씀을 읽거나 듣는 자들에게 말씀 안에 녹여진 신적 창의력을 잘 전달하고자 했다.

집필 내용은 우리 안에서 이미 완전히 성취된 사실이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누가는 사실을 집필했다. 그는 허구의 소설을 쓰고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로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사실이 집필의 강력한 원동력이다. 누가는 복음의 사실을 자신 있게 기술한다.

둘째, 그 사실은 이미 완전히 성취되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수도룩한데도 이미 완벽하게 성취되어서 현재까지 이른다고 한 까닭은 예수님이 이미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고, 복음의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선험적 고백이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완전히 성취된 복음을 전한다.

셋째, 복음은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역사하신다. 예배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나눔 공동체에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누가의 공동체적 경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이되기를 바란다. 누가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가복음〉에 투영되어 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순수한 신앙이 읽고 전해져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수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도 누가와 같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강현 목사
(양재A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 뜻을 따른 세대교체

4월 1~7일

〈열왕기상〉 1:1~2:35



목상포인트 1:

〈열왕기상〉은 ‘다윗왕이 나이 가 많아 늙었다’는 말로 시작한다. 다윗 시대가 저물어 가기에 새로운 왕을 세워서 함을 의미한다. 노쇠한 다윗이 후계자 선택을 미루는 사이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

은 이가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는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를 왕으로 세우려는 다윗의 결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묵상하자.

▶다윗의 노년에 그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압의 왕이 되고자 한다. 아도니아는 양과 소를 잡고 왕자들과 신하들을 청하는데, 그 자리에 나단과 브나야와 솔로몬은 청하지 않는다.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 밋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알리며 밋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일러 준다. 밋세바는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던 맹세를 상기시키고, 이것을 이스라엘에 공포하기를 요청한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호위대장 브나야를 불러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지명한다. 다윗은 그날 즉시 솔로몬에게 기름

을 부어 왕위 즉위식을 행하도록 명령한다.

목상포인트 2:

임종이 가까워진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을 당부한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보며 성도가 남겨야 할 바른 신앙의 유산에 대해 묵상하자.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자 모든 백성이 환호한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와서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한 사실을 알린다. 두려움에 빠진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살려 달라고 청하자,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고 관용을 베푼다.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자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유언한다. 또한 자신의 사후에 요압과 시므이를 징계할 것과 바르실래의 아들들에게 은총 베풀 것을 당부한다. 40년 다윗의 통치가 끝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다.

목상포인트 3: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따른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정의를 실현하며 왕권을 공고히 한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윗의 유언을 어떻게 시행했는지 묵상하자.

▶야망을 포기하지 못한 아도니아는 밋세바를 통해 다윗의 침소 시중을 들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 달라고 솔로몬에게 청

한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악한 의도를 파악하고 브나야를 보내 그를 죽인다. 또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 위기를 느낀 요압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도망해 제단 뿔을 잡지만, 브나야가 솔로몬의 명령대로 그를 죽인다. 솔로몬은 요압을 대신해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아비아달을 대신해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다윗의 말년을 보면서 노년기는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할 때임을 기억하자. ▶지도자를 선택할 때 우선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내가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을 때 바른 충고로 돕는 이가 누구인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놓치지 않도록 경청과 순종의 자세를 겸비하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일은 지체하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 내가 미루는 일들을 적어 보고 실천하자. ▶나는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은가? 최고의 유산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굳게 지키기 위해 사람을 분별하고, 공의를 시행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에 선을 이루기 위해 분별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나타샤 자매를 위해서!

군산M센터 나타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나타샤 자매는 카자흐스탄에서 혼자 한국에 왔습니다. 군산에 온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등록 이주민 신분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타샤 자매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서 일할 수 있도록, 미등록 이주민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고.

나타샤 자매는 요리를 정말 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요리’라는 달란트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도록,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시고. 열심히 일해서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무엇보다 군산M센터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해주시고.

나타샤 자매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많은 이주민에게 나누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부여주시는 하나님만 붙잡도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만 올려드리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고.

나타샤 자매와 같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군산M센터에서 이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 김훈 선교사(군산M센터)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한국의 기독교문화 유산'

부활절, 그 길 위에 서서 ...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해서 드린 첫 기도다. 그는 조선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흘러가기를, 그 복음이 조선 땅을 밝히 비추기를 기도했다.

부활절을 맞아 십자가의 증인이었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거닐었던 거리를 걸어보고자 한다. 정동으로 떠나보자. 정동을 상징하는 곳이라면 정동제일교회가 아닐까? 덕수궁 돌담길과 예쁜 교회당은 사람들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정동제일교회는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Henry Gerhard Apenzeller, 한국명 '아펜설라')로부터 시작된다.

아펜젤러는 1887년 가을 최성균을 매서인으로 고용했다. 얼마 뒤 강 씨라는 인물을 두 번째 매서인으로 고용했다. 아펜젤러는 매서인들이 머물 집을 남대문 근처에 마련하고,

배재학당에서 신앙을 갖게 된 학생들과 성경 공부하는 방으로도 사용했다. 이곳을 '벤엘예배당'이라고 불렀다. 아펜젤러는 벤엘예배당에서 4명의 한국인과 첫 예배를 드렸다. 1997년 10월 9일이었다. 첫 예배 다음 주 일인 10월 16일 최씨 부인이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한국 개신교 첫 여성 세례교인이 되었다. 10월 23일에는 한국 개신교 최초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그날이 정동제일교회 창립일이 되었다.

교회가 설립되고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순조로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888년 나라에서 갑자기 전교 금지령을 내렸다. 명동성당이 문제였다. 궁궐보다 높고 웅장한 성당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배가 금지되자 벤엘예배당도 폐쇄되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아펜젤러 가정의 응접실과 배재학당, 여자는 이화학당과 보구여관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다.

1889년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었다. 방해와 핍박 등 여러 제약이 있었지만, 교회는 부흥을 거듭했다. 1892년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에 모이는 성도가 200명을 넘어서었다. 1893년 예배당 건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먼저 나선 이들은 놀랍게도 이화학당에서 예배드리던 여성들이었다. 머리카락을 잘

라 건축헌금을 낼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유교 사회에서 언제나 수동적이었던 여성들이 능동적인 주체로 변한 것이다.

아펜젤러는 예배당을 서양식으로 짓기로 하고, 미감리회 교회 확장국에서 발간한 1894년판 <교회설계도안집>에 나오는 25번 도안을 골랐다. 미국 북동부에서 유행하던 전형적인 조지아 고딕양식이었다.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돼 1897년 12월 26일 봉헌예배를 드렸다. 교회 평면은 라틴십자가 모양이었고, 현관 옆에 종탑을 붙였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교회 내부는 380m² 정도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매우 아름다웠다. 정동제일교회는 정동의 상징적인 건물이 되었고, 붉은 벽돌은 정동의 상징적인 색이 되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교회는 더 붉은 예수님의 피에 담긴 사랑 이야기를 쉬지 않고 조선에 전했다. 정동제일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인 목회자의 지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 교회를 이끌었던 최병헌, 손정도, 이필주, 김종우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도 실천했다. 이에 성도가 2,800명에 달했다. 1930년대 중반 일제의 기만적인 민족말살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교회 탄압이 노골화되었다. 해방 직후 남은 성도가 1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한국

전쟁은 건물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폭격을 맞아 강단이 주저앉았고, 파이프오르간이 망가졌다. 서울 수복 이후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자 모인 성도는 11명뿐이었다.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또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전쟁 중에도 교회 종을 울렸다. 전쟁이 끝난 1953년, 폭격으로 부서진 예배당을 헐지 않고 보수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그 덕분에 아펜젤러가 건축한 벤엘예배당이 지금까지 정동을 지킬 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다시 한번 건축을 논의하게 됐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헐어야 했지만, 1977년 문화재당국이 교회를 문화재로 지정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 문화재 예배당이 되었다. 그래서 문화재 예배당은 그대로 두고 뒤편에 새 예배당인 100주년 기념예배당이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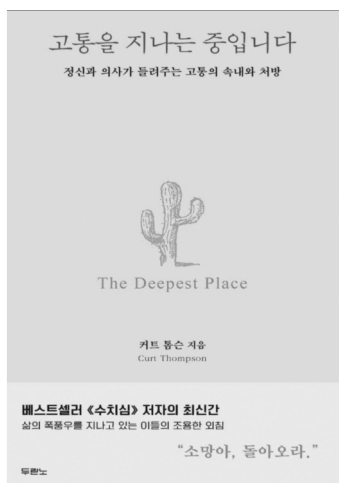
부활주일이다. 140여 년 전 어느 부활절 아침, 조선의 복음화를 꿈꾸며 이 땅에 들어온 한 선교사를 떠올리며 정동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킨 수많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이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보자. 그 길 위에 서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자.

두란노 신간

오늘의 hymn(찬송가, 찬가)

고통,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

“너희는 세상의 빛!”



<고통을 지나는 중입니다>
커트 톰슨 저 | 두란노 | 19,000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꿀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을 겪으면 절망하고, 낙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일으켜 주신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고통을 지나 소망을 찾기를 원하는 성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고통은 단지 우리가 겪는 아픔의 척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손상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가 얼마나 고립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다.”

책 <고통을 지나는 중입니다>에 적힌 말이다. 이 책의 저자 커트 톰슨은 정신과 의사다. 그는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겨내는 방법에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고통은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라고 고백한다.

책 <고통을 지나는 중입니다>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통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Celebrate The Light'
제이머스 곡

가득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한다.

'Celebrate The Light'는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한다.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노래한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찬양을 추천한다. QR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4월 4일,
지구 생태 용량 초과 날

2024년 4월 4일은 대한민국의 '지구 생태 용량 초과 날'이다. 대한민국은 2024년이 시작된 지 95일 만에 생태 용량을 모두 소진했다. 앞으로 270일 동안 지구에 생태적 빚을 지고 살아야 하고, 생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미래의 자원을 가져다 사용해야 한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 날(Earth Overshoot Day)'은 인류가 소진한 자원의 양이 지구가 한 해 재생산 가능한 자원의 양을 넘어서는 날을 의미한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 날은 국제 연구기관인 '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GFN, Global Footprint Network)'가 계산한다. 각국의 생태 용량과 1인당 생태발자국을 바탕으로 생태 용량 '채권국'과 '채무국'을 분류하고 있다. 연도별로 지구 생태 용량 초과 날이 빠른 국가는 '채무국', 늦은 국가는 '채권국'이다. GFN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가 한국과 같은 속도로 자원을 소모하면 지구 3.85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기후 위기에 한국이 얼마나 큰 민폐를 끼치고 있는지, 한국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결과다.

“풋대를 향하여 전진!”

CGN 개국 19주년 감사예배

‘CGN 개국 19주년 감사예배’를 지난 3월 29일(금)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드렸다. 박종길 목사 사회, CGN 찬양팀 찬양, 정상건 장로 대표기도, 크룩스,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전진국 대표 감사 인사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CGN 임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고한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풋대를 향하여 더욱 전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CGN 전진국 대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대답하는 현신의 CGN 임직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장기근속자



이재훈 위임목사가 CGN 개국 19주년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21년, 14년, 7년) 감사패 증정과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된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시상도 열렸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에게 상금을 수여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광명공동체, 20대 자녀 위한 맞춤전도집회

광명공동체가 지난 3월 23일(토) 20대 자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뉴 커넥션(New Connection)’을 개최했다. 2024년 첫 번째 공동체 맞춤전도집회였다. 광명공동체 목회자 및 리더십, 성도, 초청 자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맞춤전도집회는 가수 이무송 집사 사회, 광명공동체 청년밴드

특순, CCM 가수 지미선 공연, 부모 영상 상영, 여성민 목사 설교, 블레싱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박예순 집사(광명공동체)는 “자녀와 함께 하나님과 새롭게 연결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면서 “자녀가 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 곁에 꼭 붙들리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선한울타리’ 정기예배

일대일제자양육 1기 입학식 및 장학생 환영식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고 돕는 ‘선한울타리’ 정기예배를 지난 3월 23일(토) 만나하우스(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3길 27 한울에이치밸리움 B동 지하 1층)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신기섭 목사(선한울타리 담당 목사), 김형준 장로(선한울타리 담당), 오창화 집사(선한울타리 팀장), 자립준비청년, 사회선교본부 선한울타리 스태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예배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일대일제자양육 1기 입학식과 2024 푸른울타리 장학생 환영식도 열렸다. 일대일제자양육 입학식에는 주영광교회 위키코리아 청

년 16명이 참석했고, 2024 푸른울타리 장학생은 자립준비청년 26명이 선발됐다.

오창화 집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립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른울타리는 사회선교본부 선한울타리의 사역 중 하나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장학금, 반찬 나눔, 자립관 지원 등을 한다.

후원: 하나은행 573-910020-36505 (온누리교회)

문의: 02-3215-3434

NGO 더멋진세상, 인도네시아 토네이도 피해 지역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3월 25일 인도네시아 토네이도 피해 지역 주민에게 긴급 식량을 지원했다. 약 200가정에 쌀과 설탕, 식용유 등을 전달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3월 2일 오후 6시경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4개 지역 마을(누가라 바빈, 누가라 사까, 뭉방 자야, 아디루후르)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가옥 189채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 파편에 부상을 당한 주민들이 다수 발생했다.

/ 홍하영 기자

회복소그룹 ‘가족치유 마음치유’

2024 회복소그룹 ‘가족치유 마음치유’가 오는 4월 5일부터 5월 25일

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금요회복예배 이후 소그룹에서 나눔과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는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상단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교재비 포함).

회복소그룹 ‘가족치유 마음치유’에서는 ‘자존감의 발견’, ‘충동적 행동의 인식’, ‘수치심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2643-9167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이 오는 4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 JDS 홀과 충성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4월 13일까지 아이스쿨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이번 학기부터는 조손가정도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어린이 10만 원, 부모 5만 원이다.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강의와 미술치료, 레크레이션 등이 이어진다.

문의: 010-4528-0477

010-3710-9781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

‘원더풀 라이프’ 첫 번째 세미나

60세 이상 성도, 스태프 등 225명 참석

사회선교본부 ‘원더풀 라이프’ 첫 번째 세미나가 지난 3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60세 이상 성도, 스태프 등 225명이 참석했다. 이날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주제로 김형석 명예교수(전 연세대 철학과)가 강의했다.

정탁영 팀장(원더풀 라이프)은 “시니어 성도들이 인생의 후반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 시니어 사역이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원석 집사(성동광진공동체)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신앙이 함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는 4월 4일과 11일에도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QR코드나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 김다예 기자 daa2@onnuri.org



온누리가스펠프로젝트(OGP) 4월 개강

공동체별 소그룹 성경모임 ... 양육담당 총무에게 신청

‘온누리가스펠프로젝트(OGP)’가 4월 개강한다. 온누리가스펠프로젝트(OGP)는 성경 통합교재 <가스펠 프로젝트>를 온누리교회에 맞춰 구성한 나눔 중심의 소그룹 성경공부다. 소속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인도자를 포함해서 5명 내외가 모여 성경의 핵심 내용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연대기 흐름을 이해하고,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역사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참

가신청은 아이스쿨 및 각 공동체 양육 담당 총무에게 하면 된다.

김종민 목사(OGP 담당)는 “온누리가스펠프로젝트는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라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배우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를 소망한다”고 권면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효고 기·도·제·목

- 3월 31일(주일) · 효고 땅에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 4월 1일(월) · 말씀 선포하실 이재훈 위임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치유의 회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 4월 2일(화) · 러브소나타 ‘효고’에 일본인들이 가득 차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 4월 3일(수) · 참가자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성령 충만해지고, 오직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능력이 채워지기를
- 4월 4일(목) ·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는 스태프와 출연진이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기를
- 4월 5일(금) · 효고 땅에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픔과 상처들이 사라지기를
- 4월 6일(토) · 일본 땅의 다음세대들이 깨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본이 회복과 겸손의 땅이 되기를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남우주, 부: 남예셀, 모: 민혜원

2011년 아내와 결혼하고 함께 프랑스로 유학갔다. 프랑스에서 두 번의 임신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만남이 허락되지 않았다. 귀국 후에도 한 번의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끝내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인생의 패를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난임병원에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늘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몇 번에 실패 이후 아내가 너무 힘들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었다. 아브라함은 나의 기다림과 비교가 안 되는 시간을 인내했다.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유산의 아픔과 아이를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1년 전 우주를 출산한 날 울음이 들리지 않았다. 다른 남편들은 분만실에서 나오는 아이를 보고 동영상을 찍으며 환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간호사가 오더니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야 하니까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는 안타까운 아이들이 많았다. 새삼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잘 자

우주를 위한 노래

라고 있는 우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지난해 어린이주일을 맞아 ‘특별한 초대’ 예배에서 부르려고 우주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 노래 가사에 나의 고백이 담겨있다.

“우리 주님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너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네, 우주야 빨리 자라라, 우주야 천천히 자라라, 귀하고 귀하다. 이 모든 순간이 주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기다림 덕분에 우주를 더욱 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기다림을 통해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해줄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어렵다. 최근에도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큰 사건이 있었다.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소천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희망한다. 할아버지와 많이 닮은 우리 우주. 하늘에서 우주를 위해 항상 기도하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주에게 전해줄 것이다. 우주에게도 여호와 이레, 에베에셀의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육할 것이다.

■ NGO 더멋진세상에 온 편지



/ 우위린기이마나 프리미안(르완다 아카토레로 마을 리더)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르완다 아카토레로 마을의 리더 우위린기이마나 프리미안입니다. 우리 마을은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우물이 없고, 수도시설도 너무 멀리 있어서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없었고, 어린이들을 교육할 유치원도 없어서 아주 먼 거리를 매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서 거주할 집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전통식 흙집에서 주로 거주하였고, 외부 화장실은 물론 씻을 때 몸을 숨길 곳이 없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 마을의 손을 NGO 더멋진세상이 잡아주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을 통해서 아카토레로 마을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식수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을 마셔서 탈이 날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에서 아이들을 위해 영유아발달 센터 ‘ECD센터(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er)’를 건립해주었습니다. ECD센터가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먼 거리를 걸어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편

“더 멋진 마을이 되었습니다!”

하게 보육 서비스를 받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꿈을 꿀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저는 이 ECD센터에서 우리 마을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을 최빈층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았습니다. 집이 없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었고, 집 안에 화장실과 욕실도 개선하거나 설치해 주셨습니다.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생긴 것도 큰 기쁨입니다. 뜨거운 햇볕이나 비, 바람 때문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실내 예배 공간이 생겨서 주민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마을의 주민들은 NGO 더멋진세상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협력에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 지역 환경을 개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우리 마을은 점점 더 멋진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귀한 혜택이 우리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 아프리카 다른 국가에도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도합니다.

■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수료 간증



/ 김상원 성도(송파A공동체)

우리 가정이 경험한 은혜

아내가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에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재미교포라서 한국어 강의를 듣는 게 부담스럽고, 프로그램 내용도 잘 몰라서 큰 기대 없이 참여했다.

아내와 결혼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가족과 소통을 잘하는 게 내 삶의 주요 목표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다. 가끔은 가족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 줄 좋은 지도자가 필요했다.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에 참여하면서 받은 은혜가 많다. 먼저 스태프들의 섬김과 사랑이 큰 감동이었다. 모든 섬기는 분들이 한마음으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매주 다양한 활동을 세심하게 준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 주셨다. 그 섬김과 사랑 덕분에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이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았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기로 다짐

했다.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에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 중에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활동이 있었다. 가족 그림 그리기와 손 만들기 등 미술 활동을 하면서 아내와 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연합할 수 있었다.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행복한 장면을 실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 부부는 각자의 내면을 돌아보게 됐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했다.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우리 가정이 경험한 은혜를 다른 가정에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에 참여한 많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해서 더욱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한다.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박현정 순장(가정사역공동체)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의 종!

육신의 연약함이 많은 나에게 2022년 11월 암마져 찾아왔다. 그동안 간, 혈관, 신경, 안면마비, 면역질환 등 여러 질병이 노크도 없이 나를 찾아왔는데, 무슨 배짱이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지 않았던 교만한 나였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는지 정신 차리라며 유방암이라는 광야로 나를 몰아세우셨다.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 그러나 치료를 받으면서 ‘이 광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영이 소생되는 회복을 허락하셨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 되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왔다. 영이 살아나니까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씩 강건함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새 힘이 솟아나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든 하고 싶어졌다. 그때 순장학교 참가자 모집 광고를 보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신청했다. 순장학교에서 훈련받으면서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 세상을 만난 것처럼 신나고 새로웠다. 늘 같은 공동체 식구들만 만나고 사역하다가 다른 공동체 순장님들을 만나니까 설렘다. 새로운 영적 지체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순장학교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배웠다.

남편이 순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순예배에 참석만 하는 순모였는데, 순장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순장을 잘 돕는 순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했다. 청년 시절에는 나도 순장으로 섬겼었는데, 가정을 이루면서 순장과 거리가 멀어졌다. 순장학교를 통해 다시금 청년 시절의 열정을 회복했다. 열정과 설렘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성령수련회에도 참석했다. 성령님의 파스한 사랑을 느끼면서 그동안 소심하게 간구했던 성령의 은사를 대범하게 부르짖었다. 한터공동체 이웃리치에서는 선교가 무엇인지 배웠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순장학교에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순장이 되고 싶다. 계속 가지 치는 순을 세우고 싶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내 마음 받을 기경하라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서울 성동구 응봉산(鷹峰山)에 새봄이 찾아오면 기암절벽에 개나리꽃이 덮여 온통 장관을 이룬다. 응봉산과 서울숲, 한강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이루면 지나는 사람마다 탄성을 지른다. 조선 시대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사냥할 때 매를 풀어 사슴이 벌에서 쫓아 사냥을 즐겨 했는데 그 때문에 ‘매봉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응비교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정말 아름답다. 저 거칠고 척박한 돌산에서 어떻게 저런 예쁜 개나리꽃밭을 이룰 수 있는지 놀라워서 나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진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 마음 받을 더욱 기경(起耕)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시편〉에서 “주께서 밭고랑에 물은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썩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길에는 기쁨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라고 했다. 좋은 땅에 식물과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알곡의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품성을 잘 다스려야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말’이 입에서 나온 열매라면 ‘생각’은 말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로 자라게 된다. ‘마음’은 생각의 씨앗이 떨어져 싹을 틔우고,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된다.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 받’을 기경하고, ‘생각의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야 한다.

말은 곧 품격(品格)이다. 말은 사고(思考)로, 사고는 행동(行動)으로, 행동은 품격(品格)으로 이어진다. 나쁜 말은 좋은 사고와 행동을 배척하고, 진취성과 창의성을 해친다. 의식적으로라도 좋은 말, 진실한 말을 하도록 평소

마음 받을 기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김수환 추기경에게 사람들이 물었다. “추기경님은 여러 나라 말을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말을 가장 잘하십니까?”

대답이 뜻밖이었다.

“내가 가장 잘하는 말은 거짓말이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김수환 추기경이 거짓말을 잘했을 리 없다. 다만 자신도 모르게 했을지 모르는 거짓말에 대해 겸손하게 고백했을 뿐이다. 성직자가 존경받는 것은 언행이 언제나 타의 모범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말과 글은 맑고 향기로웠고,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봤던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사건 때 두 아들을 총살한 좌익 학생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다. 원수를 용서만 해서는 안 되고, 사랑해야 한다면서 그랬다.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온다. 선거철이 되면 위험한 언행을 일삼는 정치인이 세상에 뿌리는 말을 일상으로 듣고 사는 국민의 정신 건강이 위협할 지경이다. 일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할 험한 말이 전장의 총알처럼 허공을 가로지른다. 평소 선한 말도 다 못 듣고 사는 세상에서 더럽고 거친 말이 마구 귓전을 파고드니 가슴에 멍이 드는 듯싶다.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바로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편안하다”는 말도 있다. 말은 마음을 감싸는 솜이 될 수 있으나 잘못 사용하면 가시, 칼, 도끼가 되어 사람을 찌르고 몸을 해친다.

〈잠언〉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다투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한다. 부모의 막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며, 격정과 슬픔,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이 위협받는다.

나부터 마음 받을 온순하고 겸손함으로 기경해서 말의 씨앗이 생각을 심어 믿는 자로서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사역칼럼

이주민 선교는 시대적 사명

류영민 선교사
(인천온누리M센터)

약 15만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는 도시 인천은 한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다문화 도시다. 계속되는 이주민 유입으로 인해 인천의 이주민 선교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4월 인천온누리교회에서 ‘이주민 선교학교 20기’ 과정이 개강 될 예정이다.

이주민 선교학교가 열리는 인천온누리교회는 오랜 이주민 선교 경험을 가진 캠퍼스 교회다. 2010년 몽골어예배를 개척하고, 매년 몽골 아웃리치를 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왔다. 2017년에는 중국어예배, 2019년에는 러시아어예배를 개설했다. 2021년 7월에는 외국어예배를 통합해서 열방의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를 시작했다. 매주 열방의 이주민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삶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다.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와 동일한 시간에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돌봄과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2022년 9월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공동체에서 인천 송도 지역 유학생 선교를 위한 ‘Mosaic All Generations’ 사역을 시작했다. 인천온누리교회 WEB대학원부 지체들이 중심이 되어 송도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도하고 섬기고 있다. 매주 토요일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일대일 수업, 영어예배, 영어 소그룹 모임과 다양한 문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유학생 사역과 함께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공동체는 2023년 7월부터 이주민들을 위한 한국어선교팀을 구성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이주민과 유학생과 더

불어 빼놓을 수 없는 섬김 대상이 이주민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다. 이주민 가정의 중도입국 자녀들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학업 지원 요청이 계속 있었다. 이에 2023년 9월 인천온누리교회 북누리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함박웃음’ 사역을 시작했다. ‘함박웃음’은 우리나라에서 고려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함박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고려인 아이들의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위한 교육과 한국어반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의료선교팀은 2개월에 한 번씩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무료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내과, 물리치료, 치과, 한방치료 등 다양한 진료과목이 있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인천온누리교회 여성사역에서는 2023년부터 아프간 사역을 하고 있다. 아프간 여성 불레싱, 아프간 초종교 학생들을 위한 여름 학습캠프, 어머니를 위한 한국어교실, 김치 담그기 체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스포츠 동아리 ‘열방족구팀’은 중국 이주민, 인하대 외국인 유학생 등 인천 거주 외국인들과 스포츠 교류를 하면서 선교 접촉점을 넓혀 가고 있다.

이주민 선교는 시대적 사명이다. 인천온누리교회가 감당하는 선교사역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인천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 이주민 선교학교를 통해서 이주민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주민 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일시: 4월 13일~5월 18일 매주 토 오후 2시
장소: 인천온누리교회 믿음홀
문의: 010-5780-8410

신앙에세이

양진범 목사
(평택온누리교회)

지난 2018년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의 책을 읽다가 인상 깊은 대목이 있어서 나누고자 한다.

더러움을 뜻하는 형용사 ‘Dirty’는 흙을 뜻하는 단어 ‘Dirt’에서 유래했다.

여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우리는 보통 흙이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제자리에 있을 때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흙이 있어야 할 땅이나 길에서 꽃을 피우고, 길을 만들고, 식물을 키워내는 등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 보고 트집 잡아서 더

럽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흙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옷이나 신발, 손 등에 묻었을 때는 그것을 더럽다고 말한다. 바로 ‘Dirt’가 ‘Dirty’가 되는 것이다. 더럽다고 생각되는 그 흙을 빨리 씻어 내기 마련이다. 손을 씻어 내고, 옷과 신발을 털어 땀으로써 흙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 헬라어에서 죄, 죄악, 불법 등을 뜻하는 ‘하마르티아’는 ‘과녁에서 벗어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과녁에서 벗어나는 것은 있어야 할 곳, 그 자리를 잃고 목적인 바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의미다. 우리는 있어야 할 곳,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 곁에서 살아야 하는

데, 그 곁을 벗어나 죄인이 되었다.

신앙은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다.

지난 종려주일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가져오도록 명령하셨다. 그때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렸던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두 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막 11:1-3).

오늘날 우리의 제자리가 어디일까?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가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과녁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제자리일 것이다. 더불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품고, 저마다 제자리를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3:00 선교관 301호 /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1:00 선교관 ACTS29홀

인천 온누리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4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5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땅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땅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땅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희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CMN 라파티م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잡지 <새벽나라> 기획 및 취재, 편집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 서울 서빙고동
접수: 4월 7일까지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창조과학 아카데미 모집
일시: 3월 31일~4월 28일 매주 주일 오후 7시~9시
장소: Zoom 실시간
학점: 5주 과정 OBC 1학점
회비: 2만 원
문의: 02-3215-3533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희(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희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희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관사(010-3285-1726)

CMN 토보티م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온누리선교재단 재정팀 채용 공고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 근무)
자격: 기업회계 경력 3년 이상
학력: 2년제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제528기 업그레이드 부부학교 모집
일시: 4월 6일~7일(1박 2일)
장소: 경기도 광주시 진새골온누리교회 사랑의집
대상: 더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부부
문의: 02-444-5882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골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희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막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막도세홀 / 금요성령집회 21:00 시간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간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땅(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2005 - 2024

19TH
ANNIVERSARY

선교 미디어 CGN

CGN이 19년 동안 한국교회와 선교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CGN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어디서나 모두에게' 다가가겠습니다.